

전북형 4차 산업혁명 과제 발굴 총력

순창 장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도, '특별전략 TF팀' 첫 회의... 선택과 집중으로 '도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수립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북형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일 정부정책 방향과 재정부 출함에 맞춰 전북도 여건에 맞는 전북형 4차 산업혁명 분야별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전략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그간 7개 분야별 TF팀에서 소관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정책동향 파악 및 분석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7개 분야별 소관 실국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전문가·도내 지역교수 등이 머리를 맞대어 기획, 발

굴한 콘텐츠 및 신규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을 비롯해 산업, SOC, 농림수산, R&D 등 전 분야에 걸쳐 4차 산업이 적용 가능한 만큼 초기 대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정 전 분야에 걸쳐 4차 산업 정책 접목이 필요하다.

4차 산업은 올해 경제·정치계의 가장 큰 화두로, 이미 대선주자들도 차기 정부출범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정부동향과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 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방향을 정한 바 있고, 이후 32개 핵심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별전략 TF팀은 새정부 출범 및 인수위와 연계하기 위해 2~3개월의 짧은 기간 운영되지만, 정부·타시·도·대선 후보자 공약 등 동향 파악 및 과제발굴 기획부터 대응까지 차별화된 전략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전략 TF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전북도 여건과 발전 방향에 맞는 과제발굴을 기획·종합해

'전라북도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 TF팀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신청, R&D를 통한 지역인프라 구축 및 우수인재 양성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일재 부지사는 "4차산업의 발전 속도 및 파급력,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도의 대응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둔 두 트랙 전략으로, ICT융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적극 대응하고 도정핵심시책에 접목하여 4차산업혁명 흐름에서 전북이 앞서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도, 6차산업 집중 육성... 계약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

순창 장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발효식품 6차산업을 통해 장류·과채발효의 원료공급체계, 신제품개발, 공동유통망 구축 및 체험·관광 연계로 지역 농산업을 위한 6차산업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도와 순창군은 발효식품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지역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 말 순창군의 대두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능가가 2014년 대비 126%(1,425→1,785호)증가했고, 조수입은 189%(32억8700만원→62억1500만원) 증가하는 등 계약재배를 통한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안정적 원료 공급망 확보로 지역농가의 소득창출을 이끌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향교 인근에 발효식품 전문 유통판매장 '리던(REDONE)'을 지난해 5월 개장에 토마토·발효고추장과 발효쌈장 등 20개 기업 100여 품목의 다양한 발효식품이 전시·판매 중으로 한옥마을을 찾는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강천산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토마토·발효고추장 활용 전문 떡볶이점 등 개장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판매가 이뤄져 6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기업 교촌그룹, (주)야말과 발효식품을 활용한 치킨, 떡볶이 소스를 개발해 연 300톤 토마토 발효고추장 납품시장을 개척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주부, 어린이, 대학생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주 만들기, 품채배 농장 및 순창메주공장 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핵심정책인 계약재배는 농업실현을 위해 사업 주체 간(산·학·연관)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체계 구축,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강화, 성과지표 달성 지도점검 등 시군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발효식품을 고급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9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전달

송하진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2017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9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받은 기업 대표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대표들은 한결같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역할이나마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대표들은 한결같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역할이나마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1일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전달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 (주)케이피엠을 비롯한 신규 9개 업체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대표들은 한결같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역할이나마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도는 앞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멘토링 서비스 및 회계, 노무,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향상과 기업경영 마인드 제고로 지속성 있는 스타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신규지정 9개를 포함 예비사회적기업이 52개, 인증 사회적기업이 107개, 총 15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중요목조문화재 소방합동훈련

전주 완산·덕진 소방서는 11일 화재에 취약한 중요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완산소방서는 현장대응단, 119 안전센터 대원, 담당 공무원, 문화재 안전지킴이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4개소(중과지관·풍납문·경기전·전주향교)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944억원 확보

신규착수 6지구 634억원 · 기본조사 3지구 311억원

전북도는 농식품부로부터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6지구와 기본조사 3지구 등 총 9지구가 선정돼 국비 944억 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의 성과는 그동안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을 통해 많은 국비를 지원받게 돼 매년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로 등을 설치해 침수 피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신규 착수 6지구는 정읍시 유정, 김제시 월성, 남원시 남계, 고창군 동호, 부안군 신항, 군산시 축산지구이며 총 사업비 634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정읍시 감곡면 유정지구는 2008년부터 9년 동안 기본조사와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로 묶여 있어, 그동안 착수지구로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앞으로 신규착수 지구는 전북도에서 면밀한 조사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설계를 마련한 후 내년 초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돼 침수침수지역 농경지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김제시 봉남면 용신지구 등 3지구 411ha는 올해 기본조사 대상지

구로 확정돼 총사업비 31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신규착수로 지정된 5지구 793ha는 세부설계가 완료돼 4~6월 중에 행정절차를 걸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에 대비 논에서의 재배작물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침수침수 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서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민선 6기 삼라농정 정책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산림 이용 캠핑 · 레저산업 활성화 전망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돼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와 산림 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등으로 산림을 이용한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숲속에 야영장을 조성할 때 땅을 깎거나 고르게 만드는 등의 형질변경 가능면적이 기존의 전체야영장 조성면적의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자동차 야영장의 텐트 1개소당 최소면적도

종전 최소 81㎡에서 50㎡로 축소돼 경제성과 토지활용도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돼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 및 임업인 등에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산림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 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위생 교육 오늘 실시

전북도는 식육의약품안전주관으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322개소에 대한 업소 위생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설정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영업자 준수 사항,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영, 포장육 표시기준 및 축산물 등급과 이력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전달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